

용전초,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요리 체험’

‘건강 더함, 소통 더함, 행복 더함’의 시간 마련

대구용전초등학교(교장 배영서)는 지난 10일(목) 식생활교육 시범 사업 ‘맞춤형·표준화 건강급식’의 일환으로, 20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요리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시대에 요리를 함께 만들며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고, ‘건강 더함! 소통 더함! 행복 더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편식하는 학생들의 식습관을 바로 잡고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은 건강한 재료로 직접 담은 만능 된장, 제철 채소로 삼밥과 월남쌈을 만들며, 가족과 함께 재료 손질부

터 완성까지 요리 전 과정을 체험하며 음식에 얹힌 건강 이야기와 전통문화까지 배우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평소 좋아하지 않던 채소들도 직접 요리해서 먹으니 너무 맛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2학년 학생의 아버지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만능 된장과 월남쌈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고, 오늘 저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

을 생각하니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배영서 교장은 “함께하는 요리 체험으로 가족 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와 가정 연계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용전초등학교〉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엄마의 가을여행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

CHANNEL J

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 케이블 57-1

대구달성도서관 ‘10월의 하늘’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 참가자 모집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오는 10월 26일(토) 오후 2시 다목적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과학자들의 재능기부 도서관 과학 강연 ‘10월의 하늘’을 운영하며, 지난 15일(화)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10월의 하늘’은 10월의 하늘 준비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문화소의 지역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재능기부 강연으로, 달성도서관이 올해 4번째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과학자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이번 강연에는 물리학 강사와 ICT기술 분야 공학박사가 강연자로 설 예정이다. 첫 번째 강연은 ▲초전도 이야기(정현희 숭실대 물리학 강사)라는 주제로 초전도의 원리와 초전체도에 주목하는 이유를 듣는 시간이며, 두 번째 강연은 ▲챗GPT 시대, 정확하게 질문하라(현유진 DGIST ICT연구본부장)라는 주제로 우리 삶에 익숙해진 챗GPT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

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도서관 독서문화실(☎231-2171)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